

2016년 10월 2일, 한경면 용수리 홍재운씨 댁, 김선희 조사.  
홍재운(남, 1930년생, 한경면 용수리)

[조사자] 용수에 힘이 쉰 큰 할망 애기들은 엇수과?

[제보자] 아니 이디 저, 홍여옥 할망이 덩치도 크고...

[조사자] 아, 예.

[제보자] 그 할망이 잇어난디.

[조사자] 홍 누구마썸?

[제보자] 홍여옥이라고. 혼 할망이 덩치도 크고 한다. 그 할망은 여기는 물 한번 질어가랏  
주게. 물 한번 질어갈 거민 아기 하나 나빌켄 헤난 할망 셔낫지게.

[조사자] 그 할머니 애기 해줍서.

[제보자] 그 할망은 근본이 아무것도 웃어. 근본이.

[조사자] 근본이 엇어마썸?

[제보자] 아무것도 웃어.

[조사자] 경 해도 알아지는 거까지 곱아줍서.

[제보자] 아니, 힘이 쉰 할망이니까. 저 물 한번 질레 가느니 아기를 나빌켄 헤낫지게. 우  
시게로.

[조사자] 이 할망은 이 동네 사람이라낫수과?

[제보자] 으. 이 동네.

- 핵심어 : 할망, 힘썸 할망, 홍여옥 할망, 물 질기, 아기 낳기